

한통노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한국통신노동조합 / 발행인 이재석 / 편집인 김세홍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김림(02-2272-7114)

사측의 조직개편 시도 막아내



지난 23일 전국조합간부 회의에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조직개편 저지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조의 신속한 대응과 조합원 단결력 보여줘

지난 5일 사측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본부 이하 지사, 지점을 현행체제 유지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됐다. 이에 같은 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3면)

회사측의 조직개편 내용은 기존 부사장실과 비상계획실, 조달본부를 폐지하고 품질경영실과 비전경영실, 사업협력실 등을 신설했다. 또한 마케팅기획본부 등 6개 본부의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10개의 지방본부와 현업기관은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본부 이하 지사, 지점의 유지는 노동조합의 일관된 요구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신속한 대응과 노동조합 간부 및 전체 조합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낳은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요구, 회사측이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날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긴급회의 열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조직개편 저지 투쟁은 23일 전국조합간부 회의대회,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다음해인 회사측은 27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방본부와 현업기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노동조합에 인사대의원대회 자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장의 외국출장 중 통보는 확답이 될 수 없다고 판단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회사측에 이용경시장의 확대와 문서화를 요구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비상계획실과 조달본부 및 기타 조합원의 재배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고용불안 조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통노조 당당한 8대 집행부 출범

64.4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지체식위원장과 7대 이동걸위원장의 이취임식 및 조합창립 21주년 기념식이 지난 1월 6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등 각급 연맹, 노동조합 대표자를 비롯한 외빈과 KT 이용경 사장, 그리고 전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에서 지체식위원장은 "지금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조합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8대 집행부를 낳았다.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조합간부가 당당한 자세와 실천을 해야하며 변화를 주도해야 대등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7대 집행부는 2000년 총파업, 114분사투쟁, 민

영화투쟁 등 많은 투쟁들을 이끌어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 여러분께 맡긴다"며 "8대 집행부는 7대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용경 사장은 "민영 KT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위해서 모든 사항을 노동조합과 의논하여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지방본부의 추천을 받은 18명의 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8대 집행부의 모범조합간부 선원을 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의 낭독으로 전국 지방본부, 지부장이 함께 존경받는 조합간부, 당당한 노동조합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선언하였고, 현장 속에서 당당한 노동조합 실현을 결의했다.

두산 배달호 열사 분신

정부의 무리한 공기업 민영화가 부른 결과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의 분신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9일 새벽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급여, 퇴직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사달이 터져 배달호(50) 조합원이 분신했다. (관련기사2면)

그의 분신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선례가 없는 일방적인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직후인 2001년 1월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1124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잘려나갔다. 이에 2000년 7500여명이던 직원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1년에는 6270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사측은 민영화 작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2001년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가 소사장제 실시를 요구하자 또 다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은 3개월 동안 파업을 통해 소사장제 철폐를 관철시키고 임금협을 마무리지었다. 2002년에도 사측의 탄압

은 계속됐다. 2001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집단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다시 47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47일 파업으로 61명이 고소·고발된 상대고, 해고 18명을 포함해 89명이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파업으로 인한 가압류 금액이 65억원, 부당노동행위자가 21명, 조합비 및 급여 가압류자가 63명에 이른다.

두산중공업은 5월 22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이후 6개월 넘게 무단협 상태에 있었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단협 일방해지'는 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민영화는 출발한다. 수익구조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수반되는 민영화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힐게 뻔하기 때문이다.

KT 또한 민영화 원인을 맞은 올해 주주이권대회 방산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시도하려 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막아내기는 했으나 사측의 조직개편은 유보된 것이지 폐지된 것이 아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약화될 때는 언제든 다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려 할 것이다.

3면: 3월 6일~8일 전국대의원 대회 개최 예정

2면-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노동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짧게는 지난 5년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어떤 부분은 이어졌지만 또 일부는 새로운 정책들이 모색되고, 그에 따라 노정관계·노사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각 부문의 변화가 노사관계, 노정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지재식 위원장 인사말

투명하고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달 8대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행부가 안정화 되기도 전인 지난날 사측이 조직개편을 시도했고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어찌 노사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취임초기 조합원동지여러분께 분명히 밝혔습니다. 쉽게 투쟁을 결정하지 않겠지만 투쟁에 나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반드시 투쟁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며 또한 끝까지 가더라도 승리해야 할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조직개편저지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며, 몇몇 조합간부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3만 7천여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단결과 지지 그리고 뜨거운 애정에서 비롯된 승리입니다.

2003년은 민영KT원년이자 민영화이후 처음으로 맞는 입단협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측은 민영화를 맞아 수익극대화를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 및 임금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 및 임금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의 지지와 힘을 믿고 당당하게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교섭은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보안이란 명목의 밀실교섭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노동조합이 출범하자마자 조합간부상을 발표하고 조합간부에 대해 기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조했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 3년 임기동안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대의원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대의원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 꼭 참석해주시어 8대 노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했주시고 의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전국 대의원 명단

대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강북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60명)

강북 이종영, 김충성 노원 김재호 도봉 민재홍 공릉 최일규 방학 조철래 고양 김창규, 이창주 파주 이진구 덕양 오인규 일산 김선호 광진 박종국, 이효순 중랑 송병희 성수 박용원 광화문 김용위, 홍성진 흥재 김홍남 구리 고관석, 신재식 가평 이광현 남양주 김순영 양평 박경선 퇴계원 최희근 동대문 구자철, 장익훈 진흥 유경규 행당 김중열 중앙 이복만, 박종기 을지 김동태 신촌 한명희, 안병환 아현 최정규 원효 김재준, 유상섭 여의도 조현식 용산 손진환 은평 송정길, 전영복 가좌 김용만 의정부 진병태, 이원용 동두천 한귀영 포천 정성길 진국 이종도 동의정부 한정화, 허화 이희철, 배이열 성북 김경주 청량 박경수 월곡 이두희 고객센터 문덕구, 신준근 강북망건설국 김봉환 무선국 홍익표 전진국 이영구 강북본부 최희규, 박준은, 이만우

■ 강남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6명)

강동 여상훈, 박영배 고덕 이갑식 서초 나경래, 배성식 과천 김중운 송파 유정규, 송병우 가락 최영근 신사 문철규, 이종수 반포 이기홍 영등포 이학래, 김성재, 박동현 양재 이종철 수서 민낙기 남수원 한창성, 신양호 발안 유기수 오산 정성철 동수원 유영준, 임태선 수지 남대경 용인 조성환 수원 오은호, 이윤민 서수원 정성환 평택 정우필, 이준하 송탄 유원상 안성 윤세철 강남망건설국 이천역 강남본부 이광희, 강인석, 민한규 고객센터 박종일, 최광수 분당 박노일 수내 천명규 경량주 전영관 이천 이문연 여주 한홍식 성남 김연태 모란 류보현 하남 황효찬

■ 서부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51명)

구로 금기철, 홍남표 금천 김명필 남인천 정경석, 이종원 주안 김천기 만수 진영환 동작 김인근, 박재경 대방 김문배 관악 유상훈 부천 김준우, 이창영 동부천 박성기 중동 김동영 북부천 김성기 부평 조일환, 민형식 계산 김오철 서인천 김윤철 석남 안성훈 김포 이한용 강

화 흥복덕 송도 전홍철, 조상환 인천 이현오 연수 정영태 황동 백봉현 인천공방 김상근 안산 이상훈, 김기원 동안산 정석식 시화 유수원 시흥 유재덕 안양 정지근, 이광석 호계 김광배 서안양 홍순배 군포 권용철 영등포 고영민, 김근국 개봉 김희철 화곡 김희태, 김동석 목동 김희중 기암 김일모 공항 김백호 서부망건설국 문경노 고객센터 김유중 서부본부 유종현, 전병학

■ 본사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6명)

조달본부 한대웅 정보시스템본부 임종태, 오근희, 정호진 서울전산국 황종국 경기전산국 김석현 부산전산국 김철준 대구전산국 최우용 전남전산국 김주수 충청전산국 이재민 연구개발본부 김용범, 박익순, 이순호 통신망관리단 김순국, 허경옥, 노일철, 문종학, 홍성규 서울위성 성교철 운영위성 유영도 인재개발원 김구현 운용시스템연구소 이윤찬 통신망연구소 장원근 통신망건설국 조이환 서울통신망 안길준 남서울통신망 박건영, 김영근 대전통신망 김순원, 최장복 부산통신망 신춘호 대구통신망 박병태 광주통신망 김명문 전주통신망 황정택 원주통신망 최진남 안동통신망 이원택 강릉통신망 최재현 진주통신망 이석서 제주통신망 김형국 국제전화국 엄인숙, 강정국 국제재무운용국 이경호, 조철형 인터넷운영국 서순석, 임동철 금산위성 서관영 부산해저 김태선

■ 강원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24명)

원주 안승훈, 전인태 횡성 영도연 영월 홍철희 평창 한두성 춘천 박홍순, 이기영 철원 박희천 화천 황원준 양구 조대연 인제 이신식 홍천 박철호 강릉 권혁용, 이근재 정선 정영국 속초 이영수 양양 김창수 고성 최기중 삼척 이의진 동해 우정기 태백 이준근 강원망건설국 최희재 고객센터 노병덕 본부 김국환

■ 부산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61명)

고객센터 김재구 동래 김기중, 유호윤 금정 김석목 미남 고관배 김

사 이문석 양산 서부기 부산 이병현, 백범기 영도 임옥정 연산 이기학 수영 광복동 해운대 정종근 기장 김남호 마이 박정만 사하 박순호 범일 임재석, 정윤모 대연 배영수 가야 김형배 부산신 조태원 사상 정성진, 최상현 구포 손희태 강서 박연철 울산 김진태 북울산 전영래 동울산 김동현 남울산 강태기, 박세일 연양 이석원 온산 이민주 창원 김정명, 이영근 진해 양철호 동마산 정봉순, 조희호 마산 순현태 창원 주영철 환남동 의령 송호조 진주 강영식 남강 이호성 남해 김지수 삼천포 정재호 산청 김광희 사천 조수동 하동 이상석 함양 오영일 김해 김명석, 김우용 밀양 황진환 통영 박진석 거제 김영철 고성 최재상 거창 김재철 합천 박지용 부산망건설국 광역부 부산본부 손창영, 이승철

■ 대구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8명)

대구 배우일, 한호식 서대구 이영태 성서 이자홍 성주 엄치환 동대구 허인택, 김정영 남대구 김근우, 전대현 고령 노규순 봉곡 박순옥 월배 안오정 달성 이신희 북대구 김학석, 신동현 철곡 이준환 군위 손의진 왜관 박만호 수성 이상근, 변우영 상동 김영수 포항 안영태, 백범기 울릉 박만호 북포항 여성동 영덕 최치환 울진 남송문 구미 강명규, 이인형 김천 박명서 상주 박종범 안동 김시동 청송 김성식 서안동 이천원 의성 박만우 경산 석경우 청도 박정원 영천 김태해 하양 황성훈 영주 김창진 봉화 심재은 문경 김삼호 예천 김남우 경주 김경훈 건설국 송승주 고객센터 최대원 대구본부 손창영, 이승철

■ 충청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33명)

대전 이현숙, 임경학, 황성순 논산 김홍성 연무 김경호 금산 김윤근 둔산 서순수, 한규수 북대전 양재현 공주 김삼길 조치원 박수열 천안 박희순, 유동근 남천안 신명우 아산 정성태 서산 박명선 당진 임내수 태안 이승규 홍성 서흥모 예산 박명서 청양 윤용근 부

여 김의태 보령 김남경 서천 경규팔 충남본부 김지현, 서창원 고객센터 정삼태 충남망건설국 박종훈

■ 충북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18명)

청주 김석은 상당 북진경 증평 오도수 진천 장민철 괴산 안광국 남청주 박상순 서청주 오성택 가경 서광원 보은 이광배 옥천 박성하 영동 박희실 충주 남기태 음성 박덕근 제천 김호중 단양 이명준 본부 이상기 충권 정용태 고객센터 최희순

■ 전남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40명)

광산 김성정, 김원홍 장성 김규근 광주 탁상진 곡성 임재진 동광주 신영수 화순 윤경환 나주 정영관 영광 오기용 함평 이경재 북광주 류철홍, 오오철 담양 김병국 서광주 정옥재, 조영관 남광주 김성규 상구 김명용 목포 김명복, 김성수 무안지부 정영근 영암 김재현 하당 정광우 순천 임종태, 김진석 고흥 김재훈 구례 이원규 보성 최동만 광양 류춘용 여수 유호일, 조문석 여천 정승훈 해남 이남식 강진 임광택 완도 김경주 장흥 김원민 진도 김인철 고객센터 김희중 전남망건설국 오진호 전남본부 조지호, 윤창균

■ 전북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22명)

전주 임인회, 김현배 북전주 안민기 남전주 전재태 동전주 이육연 익산 이희룡, 김순호 김재 이다국 정읍 이광복 부안 유창종 고창 송석호 남원 이경택 임실 김성광 순창 한오현 무주 임정택 진안 진갑석 장수 이서구 군산 신원균, 최희석 전북본부 안동훈 전북망건설국 서철홍 고객센터 김재희

■ 제주지방본부 대의원 당선자 명단(6명)

제주시업단 지광호, 염영문 제주 김용주 신제주 고영천 서귀포 고종건 성산포 고한석

< 노 설 >

한달간 치른 홍역의 교훈

1달여 동안 혼란을 일으켰던 조직개편이 일단락 마무리 됐다. 결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된 지역본부 및 현업기관은 현행 유지하고, 본사의 일부 개편이 단행됐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승리라고 자축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노동조합 투쟁의 원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이 와해되고 KT조직의 혼란과 함께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조직개편안의 부당함이지만, 배경과 과정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처음에 현업에서 조직개편안 마련 중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다. 사측에서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진행중인데,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언박을 피웠다. 그리고 다음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황당하기 그지 없을 정도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졸속적인 밀실 조직개편안이었다. 노동조합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 이용경사장의 국제회의를 이유로 장기간 외유... 노동조합 쟁의발생 결의...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노동조합을 KT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낡은 노사관, 무책임한 개편안이 빚은 노사갈등이었다.

이해 노사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 KT전체가 근 1달간 술렁거리고, 직원들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노사갈등을 즐기기도 했으며, KT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간부 철야농성, 지부장 및 본회장 본사 농성, 전국의 대외원과 조합간부가 눈이 쏟아지는 위험한 길을 무릎쓰고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를 위해 대전에 집결하여 힘찬 쟁의발생 결의...

경영진의 노사관계 마인드 부재가 가져온 엄청난 손실이다. 이제 우리는 1달간의 홍역을 통해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현업 정서를 반영하는 경영, 열린 노사관계의 정립이다.

민영원년을 맞는 2003년, 사측은 첫 출발부터 노사대립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출범 초기 이용경사장이 밝힌 모든 사항을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측이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노동조합 또한 그에 걸맞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 투쟁에서 보았듯이 사측이 구태를 반복한다면 상생의 관계보다는 대립의 관계를 넘어설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보다 자발적일 때 그 빛을 더욱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팠던 만큼 성장하는 KT 노사관계,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의 정착과 민영KT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해 본다.

- 강세홍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장)

알고 싶어요

PDA, 통신보조비, 네스팟 이용료 등 지원

1. PDA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할 수 있는가?
사측에서는 각 PDA에 지사별 시리얼번호를 관리하게 할 것이며, 회사 이미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PDA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인 양도(매매)는 할 수 없다.
2. 현장 요원의 경우 PDA 지급이 개인선택 기종이 아닌 특정기종으로 단일화하여 일할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가?
회사측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무처리용도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RIMS 프로그램 개발이 원료/해피콜 조기시행을 위해 3개 기종 모두에 적용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고 유지보수 등을 위해 단일기종 선택이 불가피해, 자체 검토결과 사이버사의 POZ으로 선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현장요원 PDA를 RIMS폰으로 활용함에 따라, 타분야 직원들과의 차별에 따른 우대방안이 무엇인가?
우대방안으로 사측에서는 통신보조비 52,000원과 네스팟이용료 10,000원 지원 및 추가데이터 이용료는 전액무료, 부속물(목걸이, 가죽케이스), 파손 및 고장시 유지보수비용 회사 부담, 업그레이드, 성능향상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8대 집행부에서는 현장 요원에게 지급된 PDA에 타사 PDA와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것을 요청하여, 64M 램 수준의 SD카드 추가 확보하였으며, 전직원의 우대방안으로 AP 사용자(10,000원)를 사업용으로 처리하여 면제기로 했다.
4. 현장 요원이 업무전환시 다른 단말기 지급을 하는 것인가?
사측에서는 업무 전환시 다른 단말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자금지원, 이자율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
가) 기존 7.5% 이자 대부자 전원 → 이자율 3.8% 적용
나) 향후 신규 대부자 → 이자율 3.8% 적용
다) 시행일 : 2002년 7월
기존 2% 이자 대부자 → 2003년 1월부터 3.8% 적용

1. 1999년 6월 이후 이자율 7.5%적용자에 대한 차액 보상방법은?
이전 이자율(2%)과의 차액(7.5-2=5.5%)은 현금으로 이미 지급.
※ 7.5% 이자 부담 월수 계산할. 단, 퇴직자 및 전액상환자 제외
2. 보상후 이자율은?
차액보상금 지급과 동시 이자율은 3.8% 적용(2002년 7월)
3. 향후 주택자금 대부예정자의 이자를 적용은?
2002년 8월 이후 주택자금 대부자의 이자율은 3.8% 적용되며 이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운용함으로써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
4. 1999년 6월 이전 대부자(2%적용)의 향후 이자율은?
2003년 1월부터 3.8% 적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함으로써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
5. 2%를 3.8%로 이자율을 인상 시키는 것인가?
아니다. 2% 적용자도 주택자금 이자 2%의 년말 정산시 인정상여 9%에 대한 소득세 20%를 추가로 냄으로서 사실상 3.8%의 이자를 부담해 왔다.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진행될 듯

노동조합,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노동과 세계)

한편에서는 생계의 최저선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가 여전하고 심지어 확대되고 있다. 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파악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평가할 만한 비전이다.

또한 장애인·노인·여성·실업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실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도 하다. 또, 노동시간 단축 등 전체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개선하고 모성보호, 육아 사회적책임 원칙의 정착을 위한 전향적 여성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서비스부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의 전환은 바로 이 땅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다. 그리고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요구는 더욱 절박하다.

노동조합 스스로 병정한 자기 진단 있어야

노동정책의 변화는 노사관계의 핵심주체인 노동조합의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고, 또 노동조합 스스로도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방향을 가늠해서 스스로 자신의 요구나 행태를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난 5년(소위 '국민의 정부' 5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열위에 있는 계층을 주목하겠다는 약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혹자는 흔히 지난 5년을 진단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신자유주의 기조의 반개혁적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집권세력에게 오늘 노사·노동관계의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쉽게 평가한다. 이런 평가에 의하면, 오늘 노사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중 정부에게 있고, 정부의 정책 변화만이 새로운 전환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남게된다. 과연 그러할까?

지난 5년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평가를 요한다. 특히 현 노동정책의 전환을 다짐하는 새 정부로서는 반성적 성찰 역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지금 현장 노동자들의 일방적 평가가 매우 비판적인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속화하는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이중구조화 상황을 방지하고, IMF 위기를 이유로 기업활동 보장 및 투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노동정책을 종속변수로 두는 오랜 관행을 은근시킴으로서 노동현장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확대시켰다.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고질적인 노사갈등이 거듭되었고, 손배가압류 소송,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의 확대 등 법원의 보수적 행보가 더욱 뚜렷해져 노동조합 활동의 합법적 공간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은 악화되기까지 했다.

이런 조건에서 노사관계의 또 다른 주제인 노동조합은 어땠던가. 그렇게 노동현장이 악화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전망은 더욱 협소해졌고,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요구와 과제의 구체성은 멀어졌으며, 사회적 신뢰는 더욱 악화되었던 점에 대한 노동조합 운동주체들의 냉정한 성찰 역시 절실하다. 노동조합은 구두선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말했지

만, 정작 노동시장의 부정적 추세를 저지하고,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주제로서 자신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으며, 심지어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유로 정권과 자본을 비난할 줄은 알았으나 해결대안이 무엇인지는 질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사회개혁'의 전명을 스스로 방실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전망은 더욱 더 사업장 단위로 수렴되었다. 사회 각 부문에 산적한 현실에서의 개혁 과제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이념적 구호로 대체되었고, 교육, 언론, 환경, 기업관행 등 각 부문의 개혁은 노동조합 일상활동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당연히 사회 각 주체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역시 악화되었다.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 투쟁 당시 노동조합에 향하던 노동조합 외부의 여러 사회세력의 관심과 기대는 5~6년이 지난 지금 '노동조합의 집단이적적, 자기중심적 활동에 대한 실망'으로 반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내부 통합력, 즉 조직력 역시 냉정한 평가를 요한다. 지도부와 대중의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지도부의 이념주의적 편향과 조합원 대중의 실리주의적 안주가 결합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성찰 역시 절실하다. 모든 변화는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운동'의 핵심요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 탓' 하고 말 일이 아니다.

노조가 스스로 이끄는 노사관계의 전환기대

좁게 현실의 문제로 보면 얽히고 쌓인 문제는 한이 없다.

정부는 점점 노동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노동자들이 체벌, 취업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원조자로 인식되어야 할 노동행정 당국이 여전히 집단 노사관계에서 '공권력을 이끌고 다니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그러하다. 현실의 노동조합은 그나마 '발출이라도 뜨면서', 냉엄한 사회속에서 그나마 버텨볼 계간이라도 있는 노동계층이 자기 생존을 위해 버티면서 '남 탓 하는' 근거지로 인식되고 있기가 지하다.

사용자는 친민본주의의 주역으로 성장해서 여전히 전근대의 공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친박한 자본의 행태를 지속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경영 주체'로 자신을 세우지 못한 채, 지금도 패거리 지어 기존의 못된 관행을 지속하면서 변화 요구에 저항하는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제 함께 전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전환을 새 정부가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인 한, 스스로 전환을 준비하고, 정부당국에 요구하면서 자본과 싸

워나가는 주체로 자신을 세워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노동조합의 과제를 새겨보도록 하자. 우선 조합원에 충실한 노조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혜를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집단단위, 산업단위, 국가단위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조여야 한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올바른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끄는 노조여야 한다. 고용시장의 변화, 기업 구조조정, 산업의 개편 등이 여전히 계속된다. 변화에 반대하는데 머물지 않고, 변화의 방향을 먼저 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원칙을 바로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일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속의 조직인 한, 사회개혁의 요구와 호흡을 함께 하며,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실현해 낼 때만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언론개혁, 남북화해, 교육개혁, 사회복지활동 등 개혁적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 관점이 조합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할 일이다.

이런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환은 노동조합이 오늘 한국사회에 놓인 처지에 대한 자각 위에서 가능할 일이다. 눈을 들어 사업장 밖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기사는 본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 조합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월 6일 전국대의원대회

민영KT원년, 노동조합의 나아갈 길 제시할 것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리산수련원에서 열린다.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한해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이다.

올해 대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민영KT 원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의원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위상 및 존립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참가하는 대의원은 자신이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

첫째, 대의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력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대의원들의 조합간부라는 인식이 결여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대의원이 조합원의 고통을 노

동조합에 알리고 노동조합의 결정과 제안을 조합원에게 교육 및 전달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지 대의원대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거수기로서의 대의원은 지양해야 할 모습이다. 그동안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의 참여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의원 스스로가 조합간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노동조합의 위상은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셋째, 자주적인 대의원이 돼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 굴하거나 주위의 감언이설에 넘어간다면 그는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대의원이 돼야 한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이러한 대의원들의 결의의 장이 돼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토론은 치열하게 결정된 사안은 신속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석부위원장 - 김해관

먼저 조직개편저지투쟁에서 보여주었던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투쟁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8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모범조합간부상을 정립하고, 기본부터 지키는 조합간부가 되기 위해 일대 쇄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시선이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조합사업과 조합간부의 활동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이 상당부분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대 집행부가 향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모범을 창출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단순히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해 조합원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지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고 조합원 여러분에게 정당해질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적과의 싸움은 쉽습니다. 집행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비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십시오.

부위원장 - 정홍곤

노동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란 이름은 개인의 명예로운 가치 속에서 당당한 자신의 삶을 영위시켜줄수록 더붙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에게서 서로를 어루마려 주는 존경과 울바름으로 세상 삶의 척도이기도 하며 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획일화로 흔들리는 경제 만능주의의 세상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인력감축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속에 진행됐던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우리 생존권의 박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니 조합원으로서 우리 38,000여 조합원 동지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그리고 전국 지방본부 및 지부장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일단 저지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홀로 흔들리기 보다는 우리 모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처지나 위치는 자신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만들어 집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복지, 임금, 생존권 등 일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의 향상 동지들과 함께 동지들의 결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위원장으로 남겠습니다.



조직개편저지투쟁 상황일지

- ◇ 2003. 1.21 고용안정위원회 개최해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 강력항의.
- ◇ 2003. 1.22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및 조직국장 긴급 회의, 전국 지방본부 위원장 및 조직국장, 중앙본부 상집간부 철야농성.
- ◇ 2003. 1.23 사측은 경영설명회를 통해 조직개편 내용 전달(지방본부 및 지부 폐지내용), 노동조합 반대 입장 표명.
- ◇ 2003. 1.23 ~ 24 전국 지부장.분회장 본사 상경투쟁 및 조직개편저지투쟁 결의대회 개최.
- ◇ 2003. 1.24 사측에서 수정안 제시(지역본부, 지사 유지시키고 소속은 변경),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 2003. 1.27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회의에서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기로 결정.
- ◇ 2003. 1.27 사측, 2차 수정안 제시(지역본부 이하 하부조직은 현행유지), 노동조합은 사장 부재 상태, 구두 보고 등 신빙성이 없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기로.
- ◇ 2003. 1.28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 2003. 2.5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조직개편 발표.
- ◇ 2003. 2.5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요구 관철에 따라 쟁대위 해산결정.

2003년 호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

월	호도휴가비	성 과 급
1월	100%	
2월		50%
4월		경영성과급(0~150%)
6월		100%
8월		100%
9월	100%	
11월		100%
계	200%	350%+(0~150%)

지급계획: 1) 호도휴가비: 급식통근비 계좌
2) 성과급: 급여계좌

* 경영성과급은 사장 경영성적에 따라 지급을 결정
2003년도 차등지급율은 노,사간 별도 협의로 추후결정

가족과 함께 인체의 신비함을 다녀오세요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면서 회의, 농성 등으로 늦은 귀가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연히 신문을 통해 실제 진짜 사람의 신체가 해부되어 있는 전시회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교육에 좋겠다는 생각과 가족들에게 그동안 잃은 점수를 만회해보자는 생각에 전시회를 갈 것을 제안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나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교양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인간의 신체 구조 모두가 각 부분별로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어 인체의 복잡하고도 완벽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의 중요성, 해부학의 위대함,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 과학의 신비를 제공한 신체 기증자들의 숭고한 등 한마디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다.

전시회가 얼마남지 않아 아쉽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추천하고픈 생각에 잠시 안내를 드립니다.

- **관람일정:** 2003년 3월 2일까지
- **관람장소:** 서울 과학관 (서울대병원 영안실 건너편, 창경궁 옆)
- **교통편:** 주차공간 협소(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에서 성균관대 입구 사거리, 좌측 창경궁 방향/도보 5분)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9시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8시)
- **관람료:** 성인 10,000원, 중고생 6,000원, 초등생 5,000원

참고로 이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만명이 관람하였고, 한국 순회전은 현재까지 140여 만명이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조규상 <중앙본부 선전국장>



사무처장 - 양정우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사측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의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섭, 투명한 교섭, 정책과 조직이 수반되는 교섭이 되도록하고 교섭도중이나 합의 후 현장 여론을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 현업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괴리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복지제도도 임금현황 분석을 통해 민영화 이후 복지제도 후퇴나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되돌아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조합중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며 조합운용의 준거가 걸려있는 전임자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자립기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을 운용·토목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 안창식



올해의 화두로 "변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적 변화는 물론 노동환경을 비롯한 우리들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통신노동조합에서는 변화의 중심에서 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8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삼아 향후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정책기획실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구함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에 대비한 장단기 정책과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력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노동조합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책 노조'로서의 임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직처장 - 류준용

안녕하십니까? 조직처장 류준용입니다. 당당한 노동조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등한 노사관계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담당할 수 있고, 사측의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처는 우리의 힘을 강화하고, 때로는 부당한 사측 행위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전선 조직인 지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지부장과 부시장들이 움직일 때 노동조합 조직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부 조직활성화에 최우선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현재 우리 조직의 약점이 무엇인가?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조직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영 KT는 과거의 공기업과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조직강화를 일상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투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을 하겠습니다. 투쟁!!

교육선전실장 - 강세홍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장 강세홍입니다. 집행부가 출범한지 1달만이 지나고 있는 이시점에 회사의 조직개편을 저지하고 8대 집행부는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험난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현실에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조직개편저지는 조합간부들에게 단결의 기회였으며,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변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대 집행부의 탄생도 그러한 변화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노사관계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민영KT에 있어서 노사간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파국이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민영KT 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만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민영KT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원의 단결과 조합간부들의 단결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조합원들의 염원인 고용안정 쟁취를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통신 노동조합 간부상

조합원보다 먼저 출근하는 노동조합 간부
조합간부는 업무상 늦은 귀가보다 출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제된 규율로 조합원보다 먼저 출근해야 한다.

현장 활동을 우선시 하는 노동조합 간부
지부에서 조합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하겠다.

경어를 사용하는 노동조합 간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노동조합 간부도 존중 받을 수 있기에 경어를 사용용을 강조했다.

홍보, 선전 활동에 적극 노력하는 노동조합 간부
홍보는 뱃줄을 통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차단 되면 노동조합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일보다 우선해 노동조합의 회의, 교육, 집회 등에 참가할 것이다.

도덕적인 노동조합 간부
조합간부는 개인 이전에 공인하기에 공인으로서의 도덕적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활동으로 조합간부는 가족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시간이 모자란 대신 의식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공부하는 노동조합 간부
조합간부는 원안문제, 노동문제, 사회문제 등을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에 간부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노동조합 간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서로 간 신뢰를 유지해준다. 조합간부도 회의, 교육, 집회 등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간부가 조합원에 앞서 승진이나 특례 및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기본을 지키는 집행부 될 것

하부조직 강화 ...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활동하는 간부상 제시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994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며 한국최대 단위 노동조합으로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에서 일대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조합간부는 관성화 되어 일상적인 집행업무를 소홀히 하고 사측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낳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현장 조합원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먼저 개혁을 요구했고 청렴한 도덕성을 바랐다. 그리하여 2003년 제8대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당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탄생했다.

우리 8대 집행부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집행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집행부, 현장성 있는 집행부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항상 조합원과 같이 있는 집행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이 정체돼 있으면서 지부와 분회 등 하부조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

부는 지부부총회의를 강화하고 각 지부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내용의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간 책임 전가하는 행위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직강화를 바탕으로 사측을 압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단기간 사안에 얽매고 사측이 제시한 안전에 반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연구소설립을 시작으로 중장기 대안과 KT발전방향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겠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에서 활동하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삼집간부 개인의 소견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문제제안과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복지제도, 주5일제 근무, 상품판매 등 여러가지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 먼저 현장조합원과 각 지방본부 및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행에 옮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과 결과를 투명하게 조합원에 전달하겠다. 유리한 것은 알리고 불리한 것은 숨기는 과거의 관행은 이제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철저히 공개하고 평가 받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돌쩌귀에는 녹이 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문이 열고 닫히는 한 녹이 슬 새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8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요구와 어려움이 있는 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속에 원칙을 지키는 간부, 대안을 제시하는 간부, 활동하는 간부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의 요구와 어려움이 있는 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속에 원칙을 지키는 간부, 대안을 제시하는 간부, 활동하는 간부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지난 1월 6일 본사 강당에서 신임 한국통신노동조합 지재시 위원장이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방본부위원장 인사말

강북지방본부 - 김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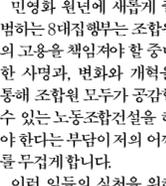
이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강북지방본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세월 조직간의 갈등으로 치부되었던 강북지방본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간부

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강북지방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재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간부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중앙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지방본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마다 개최되는 지부단위 노사협의회를 현실화하고 지방본부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의 안전을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부별 권역별 교육 및 수련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이 절실히 느끼고 요구하는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중앙본부와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강북지방본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지방본부 - 이현광



민영화 원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8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명, 변화와 개혁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동조합전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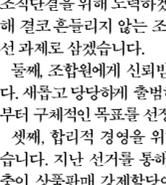
이런 일들의 실천을 위해 저의 몇가지 생각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하부조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을 달리하던 서울권 조합간부와 경기권 조합간부의 조직간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수련회 등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직적 일체감을 이루는 데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둘째,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롭게 당당하게 출범하는 8대 집행부는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셋째, 합리적 경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많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상품판매 강제할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민영화에 걸맞은 상급과 원칙을 가진 경영이 수도권 강남본부에서 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의 노사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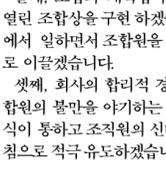
서부지방본부 - 김병택



저는 수도권 서부지방본부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의 기쁨 보다는 우리가 당당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토대에서 시작하는 지방본부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민주노조의 정통성 계승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며 기필코, 고용안정을 쟁취 해야만 합니다. 이에 서부지방본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3년간 추진해 나갈 몇가지 소망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당한 서부지방본부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지방본부 건설이란 '노'와 '사'가 역할을 분담해 대등한

부산지방본부 - 정윤모



노사관계 설정을 통한 서로 아껴주며, 함께 발전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말합니다.

둘째, 조합의 개혁입니다. 조합원에 의한 참된 조합, 열린 조합상을 구현 하겠습니다. 항상 조합원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조합원을 참여와 화합과 단결의 마당으로 이끌겠습니다.

셋째, 회사의 합리적 경영방침을 유도하겠습니다. 조합원의 불만을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경영 방침을 상식이 통하고 조직원의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경영 방침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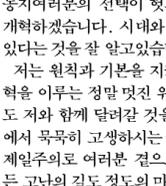
전남지방본부 - 임종대



저는 원직과 기본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정량 및진 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달려갈 것을 바라면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동지들을 믿습니다. 또한 현장 제일주의의 어려운 결로 다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정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지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라오며, 항상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당찬노동조합전선!!!

대구지방본부 - 김근주



저는 8대 대구지방본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의 기쁨보다는 노동조합의 당당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구지방본부의 3,600명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 시킨다면 제가 반드시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은 동지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시작됩니다. 사실을 잊지마시고 단결된 모습으로 난관을 극복합니다. 제가 그 투쟁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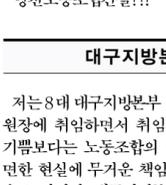
저는 조합원동지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첫째, 노조개혁으로 조합원의 열린 노조를 구현하겠습니다. 항상 조합원의 가까운 곳에서 조합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조합에 찾아와 허심탄회한 대화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정 쟁투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도록 회사에요구해 고용안정과 승진적제를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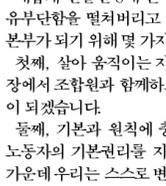
셋째, 복지제도 개선으로 미비사항을 복지정책 구현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본사지방본부 - 김순근



제8대 본사지방본부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힘차게 열어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혹자들은 현재의 변화의 물결을 위기로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노와 사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남지방본부 - 남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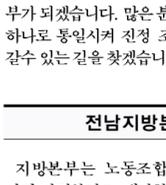
민영화 원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출발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부정 및 내국인 선전을 유일한 활동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노사관계의 책임을 적당히 정부쪽으로 미루기만 하던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민영화 시점인 이상 경영총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란 곧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사나다는 사람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적자원, 즉 인건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나라가 아직도 이 지구상의 중심축에서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걸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소비자 맞오지만 미루며 직원들만 담당하는 단일한 경영만 하지 말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주길 바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버텨달라고 내뿜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더 희망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경영진에게 제안합니다.

충북지방본부 - 이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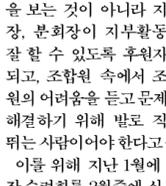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범하는 8대이지만 지난 12월에 동지들이 보여준 결집된 힘과 지력은 앞으로 있을 어려운 노사관계를 힘있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충북은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지부 및 지방본부의 운영방침과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실천을 위하여 공격한 변화보다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편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조합활동과 모범적인 조합간부상을 제시하고 각종 노동조합 행사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집간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중앙 및 지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발달로 뛰는 실천적인 조합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수라는 개념을 벗어난 완전 민영화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측 조직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도 그에 걸맞은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정책과 투쟁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지방본부 - 권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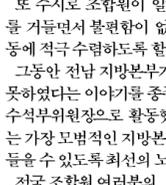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강원지방본부 위원장 권혁웅입니다.

2003년은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방적인 조직개편, 2003년도 임금협상 등 어느 하나 우리에게선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안 하나 하나가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과도한 목표와 상품판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묵과하거나 방관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 상품판매 관련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8대 집행부는 투쟁만 외치지도 않겠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

전북지방본부 - 서철용



반갑습니다. 전북위원장 서철용 드려요. 기쁨으로 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민영 KT에 걸맞는 8대 집행부는 당당한 노동조합 전선을 슬로건으로 조합원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명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집행부의 신뢰회복과 조합원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개혁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동지들을 생각하며 선봉에서는 전북지역본부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된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을 구현해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하겠습니다.

또 당당한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의 역할을 다하는 강한 노동조합의 초석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강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단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중앙위원장의 명명과 지시에 따라 총단결로 진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방본부 - 고홍관



노동조합이 바로 서야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인력충원 없는 신규 사업이 도입되고 경영평가가 미명하게 무차별적인 강제 상품판매가 시행돼도 소극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책과 대안부재로 인해 합의서만 남발될 뿐, 사측의 논리에 휘말려 조합원들은 절망을 피꾸러 느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제8대 집행부는 KT 민영화 후, 중앙, 지방, 지부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동지들의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초석이 되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온몸으로 다 바치는 변혁과 개혁의 주체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개혁과 희망을 갈망하는 동지여러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다 해도 새벽은 우리의 창가를 비추고, 아무리 시련 눈보라가 몰아칠다 해도 짙은 피우는 봄은 어느덧 발 아래로 다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신뢰와 원칙이 있는 정직한 노동조합을 동지들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릴 것이며, 그 결실은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당당한 노동조합을 제시하는 데 제주 지방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낡고 구태의연한 노동조합의 약속과 폐단은 뿌리뽑고 함께 개혁과 혁신의 주체가 됩시다.

한동아정씨



의 정통성 계승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며 기필코, 고용안정을 쟁취 해야만 합니다. 이에 서부지방본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3년간 추진해 나갈 몇가지 소망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당한 서부지방본부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지방본부 건설이란 '노'와 '사'가 역할을 분담해 대등한